

보도시점 2026. 10. 8.(목) 06:00
2026. 10. 8.(목) 석간

배포 2026. 10. 7.(수) 14:00

고온에도 속 짝 찬 배추 ‘청명가을’ 대한민국 최고 품종 선정

- 국립종자원, ‘2026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결과 발표
- ‘후계육종가상’ 첫 신설, 수박 ‘맘모스꿀’ 개발 육종가 선정
- 오는 10월 21일 전북 김제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상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속이 차는 배추 ‘청명가을’이 올해 대한민국 최고 품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흰녹병*에 강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국화 ‘백강’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 병원균에 의해 식물의 잎 등에 흰색의 물집이 형성되어 생육을 저해하는 병해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우수 품종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 품종을 발굴·시상해 육종가와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식량·채소·과수·특용·버섯·화훼 6개 분야에서 모두 29개 품종이 출품됐다. 국립종자원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수상 품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 현장과 시장의 평가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유통 전문가와 종자 소비자가 참여했고, 젊고 유능한 육종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후계육종가상’도 처음 신설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주)NH농우바이오에서 출품한 배추 ‘청명가을’ 품종이 차지했다. ‘청명가을’은 기후변화로 가을철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속이 차는 결구 능력과 내서성이 뛰어나다. 밭에서 쉽게 물러지지 않아 수확 및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뿌리혹병*에도 강하여 재배가 용이하다. 이에 안정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 가을배추 종자시장 점유율 29%를 차지하고 있다.

* 병원균에 의해 식물의 뿌리에 혹이 형성되는 병해

국무총리상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백강’ 품종과 (주)NH농우바이오의 단고추 품종인 ‘19ITP4719’이 선정됐다. ‘백강’은 국화 재배농가의 대표적 골칫거리인 흰녹병에 강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다. 기존 품종과 비교해 수확량과 절화수명이 개선돼 농약 사용과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전국 18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후계육종가상에는 수박 ‘맘모스꿀’을 개발한 (주)팜한농이 선정됐다. ‘맘모스꿀’은 기존 품종 대비 열매의 크기가 크고, 고온기 과형 안정성이 뛰어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청풍찰(수수)’,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새청무(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감풍(감)’, ‘원감(감초)’ 등 4개 품종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는다.

이번 수상 품종은 생산성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병해충 저항성, 농가소득 기여도, 시장성, 수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열리는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과 연계해 진행된다.

국립종자원은 수상 품종이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수출상담·판로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올해 수상 품종들은 기후변화와 병해충, 수출시장 개척 등 우리 종자산업이 마주한 과제에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며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디지털 육종 등 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를 지원해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ی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6년 제22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품종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문경덕 (054-912-0150)
		담당자	사무관	조용형 (054-912-0151)



□ **대통령상 (1점)**

품종명(작물명)	품종사진	수상자	상세설명
청명가을 (배추)		(주)NH 농우바이오	○ 기후변화에 대응, 더위에 강하며 고온에도 결구력 우수 - 고랭지 2기작 및 전국 가을 재배에 안정 ○ 밭에서 오래 버텨(재포성↑) 수확시기 여유 ○ 뿌리혹병(race4) 내병성 품종 ○ 수량·상품성 우수하여 농가소득 증대 ○ 국내 가을배추 시장 29% 점유 * (판매액) '23~'25년 38.9억원

□ **국무총리상 (2점)**

품종명(작물명)	품종사진	수상자	상세설명
백강 (국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저온(18℃) 개화 - 겨울 재배 시 난방비 절감(20%) 효과 ○ 흰녹병 저항성 품종 - 농약 사용량(30%↓) 및 노동력 절감 ○ 수량·상품성 우수하여 농가소득 증대 ○ 국내 대국 시장 24.1% 점유 * (판매액) '25년 16억원
19ITP4719 (고추) *수출상		(주)NH 농우바이오	○ 안정적인 생육으로 착과력 우수 - 고당도, 고품질 과실 수확 가능 ○ 복합내병성 품종 * TSWV, PMMoV, 흰가루병 등 ○ 스페인 주요 재배 시장 20% 점유 ○ 단일 품종 기준 유럽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수출액) '25년 112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

품종명(작물명)	품종사진	수상자	상세설명
청풍찰 (수수)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 기존 주력 품종(소담찰) 대비 이삭 형성 및 발달 우수하여 수량성 증가 ○ 쓰러짐 및 병해충에 강하여 상품성 우수 ○ 간장이 길어(109cm) 기계수확 가능 - 수확 효율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국내 수수 재배면적의 66% 차지
새청무 (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기후변화에 대응, 병해 및 도복, 수발아에 강하여 전국 재배 가능 ○ '23~'25년 전국 벼 재배면적 1위 - 전남 전체 시·군 공공비축미 선정 ○ 일본, 미국, 유럽 등 11개국 수출 * (수출량) 1,238톤, (수출액) 2,915백만원
감풍 (감)		국립원에 특작과학원	○ 기존 주력 품종(부유) 대비 재배 용이, 생산비 획기적 절감(32%↓) ○ 주요 생리장해(과피열과, 꼭지들림 등) 극복 ○ 내한성 우수 및 서리 등 기상재해 회피 ○ 시중 판매단가가 높아 농가소득 증대
원감 (감초)		국립원에 특작과학원	○ 국내 최초 감초 중간교잡 품종 개발 * 광과감초 × 만주감초 ○ 내병성(갈색점무늬병), 내도복성으로 재배안정성 우수 ○ 재배기간 단축(1.5년) 및 증식률 증가(30배) ○ '대한약전' 등재 이후 2년 만에 국내 재배면적 57% 점유
맘모스꿀 (수박) *후계육종가상		(주)팜한농 (남기철)	○ 기후변화에 대응, 저온기 비대력 (과중 1kg↑) 및 내고온성 우수 ○ 기형과 열과 적어 과실 균일 생산 가능 ○ 과실 내 씨앗 소립화(3g)로 취식 편의 ○ 겨울 수박 주산지(경남 함양) 70% 점유